

News

금융당국, 내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예정...전세 대출은?

세계일보

금융당국, 내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예정...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
금융위와 금감원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자료에도 실수요자 불편 없도록 세심한 강구 중임을 강조...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 축소 최소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

하나은행, 비대면 MCI 중단... 주담대 한도 축소

조선비즈

하나은행, 온라인에서도 일부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상품 취급 중단...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시적 조치"
MCI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 상품... 가입한 대출자는 LTV 만큼 대출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어...

카뱅 이어 토스뱅크도 카드업 진출...메기효과 가져오나

이코노믹리뷰

현재 토스뱅크 계좌 개설 고객 약 45만 명... 계좌개설과 함께 체크카드 발급도 급증 중...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등 조건 없이 매달 최대 46,500원 캐시백 혜택
토스뱅크, 현재 신용카드업에 진출하기 위한 라이선스 작업 진행 중... 아직 금융당국 허가와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는 않아... 향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5대금융지주, 올해도 사외이사 '예스맨'...자율규제 무색

데일리안

5대 금융지주의 6월 30일까지 총 32번의 이사회를 진행 중 98건의 안건 통과... 이중 사외이사들의 반대표는 0건으로 집계
사외이사의 역할이 금융사 지배구조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개선 계획안 관련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서 보험사 첫 승소 나와

뉴데일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1심 소송에서 각각 승소 판결 내려...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
그동안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1심 소송에서 잇따른 패소... 금융당국 추정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총 1조원 가량, 이 중 삼성생명의 부담액은 절반 가량

교보생명, 업계 첫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소비자 실익 '확실했'

데일리안

교보생명, 퇴직연금 일부 상품 수수료 면제... 보험업계 최초 수수료 면제하는 만큼 퇴직연금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전략
6일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DB형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소비자들은 DB형, DC형 상품 가입시 비용아낄 수 있어...

외국인, 지난달 韓주식 2조5000억원 순매수 전환...채권은 9개월째 순투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지난달 2조 5,000억원 어치 국내 주식 사들여... 채권 순투자 규모는 5조원 초과... 주식과 채권 순투자 규모 모두 아시아 지역이 1위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9월말 기준 769조 2,000억원, 시가총액의 28.1%에 달해... 총 972조 8,000억원 어치 상장 증권 보유

'화천대유' 불똥 튀까...증권사 부동산PF '노심초사'

비즈팩트

화천대유 등 정치권 논란으로 공공 개발사업 관련 시행이익이 줄어들 상황에 직면... 화천대유 투자는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이루어져...
부동산 개발 사업 참여는 금융회사들에 안정적인 수익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제와 같은 부동산 PF 관련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